

중국 몽고족 민요 음악의 문화적 특징 및 전승 연구

사 옥*· 이 영 율**

I. 서론

민요는 민족의 고유한 가치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구심점이다.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들의 전통음악 중에서 독보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몽고족 민요는 2006년 세계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신중국 건국 이후 몽고족 민요는 다수의 작곡가들에 의하여 다량 창작되어 새로운 시대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곧 '장조(長調)'의 전통적인 음악적 특성과 '마터우친(馬頭琴)'을 대표로 하는 몽고족 전통악기 및 '후마이(呼麦)'의 독특한 가창법을 중심으로 전승 및 발전되어 왔다. 몽고족 민요의 이러한 시대적 특징의 형성 배경은 대초원의 자연적인 환경과 몽고족의 독특한 생활방식 및 민속 풍습에 기인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몽고족 민요 작품은 '초원이 솟아오르는 태양(草原上升起不落的太阳)', '초원 아침노래(草原晨曲)', '아오마오 상회(敖包相会)', '아름다운 초원, 나의 집(美丽的草原, 我的家)'과 기악 작품 '가다메이린(嘎达梅林)',

* 제1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생(siyujil@naver.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yylee01@khu.ac.kr)

교향 작품 ‘고향(故乡)’, 마터우친(马头琴)협주곡 ‘초원음시(草原音诗)’, 사호(四胡) 작품 ‘로테오 청년(牧马青年)’과 피리 작품 ‘목민 신곡(牧民新歌)’ 등으로, 오늘날 내몽고 지역에서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70년 기간 몽고족 민요가 고유한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문화적 배경 하에 나타나는 특징을 민요의 유형과 지역적 특징, 연주 악기, 가창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보터러투(博特樂圖, 郭晶晶, 2014)에 기록된 대표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2018년 필자가 직접 내몽고 대학을 방문하여 몽고족 청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몽고족 민요 문화 관심도 조사” 결과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몽고족 음악형식과 민족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하며 전통음악과 새로운 음악의 전승관계를 고찰하는데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Ⅱ. 몽고족 민요의 문화적 흐름

전형적인 유목민족으로서의 몽고족은 물과 풀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여 생활해왔다.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는 중국 최북단의 후룬베이얼 대초원(呼倫貝爾大草原)에 위치해 있으며, 1947년에 성립되었다. 내몽골자치구는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 자치구로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보다 2년 빨리 성립된 것이다.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1206~1368)가 오늘날 대륙 몽고 민족의 시조로서, 몽고족은 중국 국경의 북부지역 초원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형성하였다. 청나라(淸朝)에 이르러 몽고족은 청정부에 귀속되었다가 1921년 중화민국을 탈피하여 몽고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으며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외사막 남부의 몽고족 근거지를 ‘내몽고’¹⁾라고 하고, 사막 북부의 독립한 몽고를

1) 본고의 ‘몽고족’은 내몽고 즉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을 지칭하며, 외몽고 국가의 몽고족과는 구별된다.

‘외몽고’라고 부른다(周清澎, 1993, 15-28).

역사적으로 내몽고는 현재 ‘몽고인민공화국’이라 부르는 외몽고와 같은 기원이지만, 오늘날 몽고족의 삶의 풍습과 그들만의 문화적, 음악적 특징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있는 외몽고 국가의 몽고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내몽고는 초기에 형성된 문화와 의식, 그리고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몽고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을 유지 발전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특징이 중국 국경 내의 일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 또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즉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문화적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몽고족 그들만의 초원문화와 민족정신이 결합된 몽고족의 민요는 중국 민족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2006년에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田聯翰, 2001, 50-63).

전통적인 몽족 민요는 몽고족 음악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몽고족의 문학과 예술의 전반에 큰 방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초기의 몽고족은 내몽골 ‘얼구네이하(额尔古纳河) 유역(流域)의 산림지대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수렵 생활하며 부족(部落)과 씨족(氏族)의 형태로 생존하여 왔다. 저우칭핑(周清澎, 1993)은 전통적인 몽고족 민요의 기원을 산림수렵음악시기(山林狩猎音乐时期), 초원유목 음악문화시기(草原游牧音乐文化时期) 및 반농반목음악문화시기(半农半牧音乐文化时期)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문화적 배경에 기반한 몽고족 민요는 전통적 수렵(狩猎) 민요로 단조노래(短调歌曲)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趙永銑, 2013). 수렵 단조노래는 일명 수렵가무(狩猎歌舞) 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원시사냥의 생활방식에서 유래해 온 것이다. 음악적으로 단조는 곡조가 짧고 리듬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노랫말 가사의 내용은 대부분 고대 몽고족 사냥꾼들의 수렵 생활을 직접으로 시물레이션하고, 대 초원의 각종 비금주수(飛禽走獸)류의 동물들의 동작과 표정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고 있다. 이러한 수렵노래는 이 시기

몽고 민요의 가장 고풍스럽고 원시적인 상태이다.

산림수렵 시대를 지나 몽고족은 초원에서 방목과 수렵의 방식을 병행하며 생존하였다. 전통적인 유목민족으로서의 몽고족은 초원의 자연환경, 특히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말, 양, 소 등 초원의 대표적인 동물을 통하여 그들 자신들만의 초원문화를 창출하였다. 몽고족을 '말 위의 민족(馬背上的民族)'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초원에서 생존하는 동물들의 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마터우친(馬頭琴)과 같은 악기들은 오늘날 몽고족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전통악기로 사용되고 있다.

기원 7세기 즈음 몽고족의 생활방식은 수렵 위주의 생활에서 축산 위주의 경제적 형태로 변화하였다. 농업과 반농반목경제는 새로운 단조민요(新短調民謠)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발라드민요(長篇敘事民謠)로 발전하였다. 19세기 말부터 몽고족은 전통적인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을 병행함에 따라 그들의 민요도 한껏 더 서정적인 장조민요(長調民謠)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몽고족 장조민요는 19세기 말기부터 지금까지 몽고족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적 특징으로 정착되었다.

신중국 건국 이후 몽고족 민요는 다양하게 변화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의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 본고는 보터러투, 귀징징(博特樂圖, 郭晶晶, 2014)의 정치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분류한 것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특별한 변화와 발전시기로 살펴볼 것이다.

1. 신중국 새로운 몽고족 민요의 형성시기(1946년-1966년)

1949년에 내몽고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서 몽고족 청년들을 주체로 하는 '혁명문예공연 팀(革命文藝表演隊伍)'을 만들어 '내몽고문공단(內蒙古文工團)'이라는 예술단체가 탄생하였다. 이 예술 단체는 내몽고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예술 공연팀으로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延安文藝座談會)의 정신을 받들어

2) 馬背上的民族 <https://zhidao.baidu.com/question/346042687.html>(검색일 : 2019.09.02.)

예술적 형식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몽고족의 장조민요 형식을 띤 노래는 '초원에 솟아오르는 태양(草原上 升起不落的太阳)'이다. 이 민요는 중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공연무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1955년 제5회 세계청년축제 경기에서 금상을 받아 현재는 몽고족 장조 민요, 나아가 중국의 대표적 음악작품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2. 신중국 몽고족 전통 민요의 회복과 발전 시기(1978년-1991년)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은 10년간의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이 시기의 많은 몽고족 음악가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민간 예술인들도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의 몽고족 전통음악은 고유한 몽고족 전통문화 및 음악과 단절되었으며 전통음악의 원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976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몽고족 민요는 새로운 전승과 발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몽고족 민요는 전통을 회복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음악가들을 통하여 내몽고 민요를 널리 전파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몽고족 민요가 중국 음악의 일부분으로서 민요 창작과 음악 공연, 음악 이론 및 음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의 몽고족 민요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음악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중국의 민족음악의 한 장을 장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 신중국 몽고족 민요의 전면적인 발전 시기(1992년-2019년)

1992년, 중국은 '제14차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회의참석자 대표자들은 "민족문화의 권리를 수호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 정책은 통과되었다. '민족문화산업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전승'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된 이 정책의 빛을 받아 몽고자치구에서는 몽고족의 전통 민요와 민족문화발전을 연결시켜 새로운 문

화부흥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몽고족 민요는 음악적 이론적 지식으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동시에 산재해있었던 민요 작품들을 수집하고 서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음악 전문 학자들에 의하여 몽고족 민요음악은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구현해내고 전파시켰으며, 마침내 2005년 11월 25일, 유엔 파리 대회에서 제3차 몽고족 민요가 인간무형유산 대표작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곧 2006년 5월, 내몽고 장조민요는 중국 최초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이다. 2007년 10월 24일, 중국 최초의 위성 ‘상야1호(嫦娥一号)’가 30여 곡의 중국의 음악과 노래를 싣고 우주로 향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주에 올려 퍼진 노래가 바로 몽고족 장조 민요 ‘풍요로운 아라산(富饶辽阔的阿拉善)’이었다. 이 계기로 몽고족의 장조 민요는 대중적인 인기까지 힘입어 중국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特乐图, 2001).

Ⅲ. 몽고족 민요 음악의 양상과 특징

1. 몽고족 민요의 종류와 지역적 특징

몽고족 민요는 장조(長調)와 단조(短調) 두 가지 음악적 형식으로 나뉜다.

장조는 주로 중국 동부의 목축지역과 음산(阴山) 지역의 북부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주로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창조한 노래들이다. 장조는 몽고어로는 ‘영원하다’란 뜻으로 ‘우르투도(烏日圖道)’라고 한다. 장조의 가사는 짧고 선율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음악적으로 포만감을 준다고 한다. 단조와 비교하여 장조 민요는 가락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것은 몽고의 장구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의미도 있다. 음악적으로 장조는 대부분 선율이 밝고 리듬이 자유로운데, 이는 장조 민요가 주로 몽고지역의 광활한 초원환경과 유목민들의 넓은 아량을 반영하는 음악이다. 장조 민요는 현대 몽고족 민요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조 민요는 주로 몽고족들이 야외 방목과 명절 축제 때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유목민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자신들만의 깨달음과 자유분방한 유목생활을 노래한다. 따라서 민요의 노랫말은 대부분 자연을 찬미한 것으로 초원, 준마, 낙타, 소, 양, 푸른 하늘, 구름, 강 등 자연의 사물과 경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단조 민요는 장조와 달리 음과 음의 사이에 ‘스트린젠도(Stringendo, 王玲玲, 2013)’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몽고 북부의 후룬베이얼대초원(呼倫貝爾大草原) 지역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조 민요는 리듬이 정연하고 선명하며 장조보다 음역이 상대적으로 좁다. 단조는 ‘보니구도(寶尼古道)’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악적으로 ‘레시타티브(recitative, 李華, 2001)’의 스타일을 표시하는 것이다. 단조 민요는 ‘꾸밈음(Ornaments)’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곡조가 간단 한 동시에 선율이 낮다. 또한 리듬이 매우 규범적이고 대부분 고정적인 박자를 사용하며 대칭적인 음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조는 한 작품에서 두 단락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한 단락은 한 마디로 구성되는데, 문화적, 시대적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마디 수가 점점 더 추가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중적으로 불리는 단조 노래는 한 단락에 4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단조 곡들은 선율이 길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불리는 특징이 있다. 단조는 규칙성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가장 대중적인 음악으로 본다. 단조 민요의 가사 내용은 주제가 광범위한 것으로 몽고족의 사회생활 전반을 반영하고 있다. 발라드(情歌), 권주가(勸酒歌), 결혼가(婚禮歌), 축수가(祝壽歌), 서사가(敘事歌), 자장가(搖籃曲) 등 음악 종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단조의 음악형식은 장조보다 간단하여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 사람들을 빨리 흡입하여 하나로 융합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민요음악의 표현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몽고 각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구현하기도 한다. 지역적으로 몽고는 초원에 위치해있어 민요의 음악적 스타일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요들은 몽고지역의 지명을 통하여 분류한데서 나타나는데, 보터리투, 귀징징(博特樂圖, 郭晶晶, 2014, 64-67)은 구체적으로 ‘바얼후 장조민가(巴爾虎蒙古民歌長調)’, ‘부리아터 민가

(布里亞特民歌), ‘커얼친 민가(科爾沁民歌)’, ‘적봉바림 민가(赤峰巴林民歌)’, ‘차하르 민가(察哈爾民歌)’, ‘시린귀러 민가(錫林郭勒民歌)’, ‘오르도스 민가(鄂爾多斯民歌)’, ‘아라산 민가(阿拉善民歌)’, ‘우라터 민가(烏拉特民歌)’, ‘다우르, 오원커, 오르손 민가(達斡爾, 鄂溫克, 鄂倫春民歌)’, ‘무천현 등산 조(武川縣爬山調)’ 등 11개 민요로 나누었다.

이 11개 지역의 민요 유형에는 전통적인 단조와 장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바얼후 장조민가(巴爾虎蒙古民歌長調)’, ‘부리아터 민가(布里亞特民歌)’, ‘커얼친 민가(科爾沁民歌)’ 이 세 지역의 민요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나타내는 민요로서 본고에서는 이 지역 민요의 지역적 특징을 분석한다.

1) 바얼후 장조 민가³⁾(巴爾虎蒙古民歌長調)

내몽고지역의 후룬베이얼(呼倫貝爾) 목축 지역은 장조민요가 가장 많이 불리고 있다. 몽고족들은 대부분 몽고어로 노래하며, 작품에서는 가사내용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장조의 음계는 대부분 길고 목소리 높으며 리듬 또한 자유롭다. 바얼후 장조민요는 음악 스타일이 가장 열정적이고 음계에서 대중적으로 중국 전통적인 오음음계(五聲音階) 위주로 진행된다. 음악적으로 그들은 노래에서 대부분 ‘우(羽)’, ‘궁(宮)’, ‘치(徵) 3 개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가사와 주제는 비교적 규칙적이고 고정적이다. 그중 내용은 대중적으로 고향을 찬미하거나 사랑을 기다리며 노래하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몽고지역을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음악적으로 몽고족의 가창력은 대단 것으로 우선 목소리가 우렁차다. 때문에 바얼후 장조 민요는 몽고족의 넓은 가슴과 솔직한 성격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며 초원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이에 걸 맞는 광활한 대지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바얼후 장조의 가사내용은 규칙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곡의 운용에서는

3) 중국 民歌는 『詩經』이나 『楚辭』에서 고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만, 민가는 민요(民謠)라는 명칭으로도 중국 문헌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中國 宋나라 때의 역사지리서인 《六朝事跡編類》에서의 “是時先有民謠”이다. 그러나 이 밖에도 민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말로는 俗謠·俚謠·淫詞·短歌·雜歌·國風·風謠·童謠·民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매우 자유롭고 광범위하다. 일례로, 몽고민족들은 방목을 하거나 말을 탈 때, 장조를 주로 부르는데, 민요의 전체적인 기풍은 강한 힘을 나타낸다. 가족과 함께 몽고민족의 전통 명절을 즐길 때와 동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희를 즐길 때면 장조 노래로 분위기를 한껏 올린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대표적인 장조 민요는 ‘광활한 소원(그림 1)(遼闊的草原)’이다.

辽阔的草原

1=B 内蒙民歌

$\overset{\text{♩}}{\text{3}} - -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7}} \quad \overset{\text{♩}}{\text{6}} -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2}} \quad \overset{\text{♩}}{\text{1}} \overset{\text{♩}}{\text{2}}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5}} - \overset{\text{♩}}{\text{6}}$
 虽然 有 辽阔无际的 草地，
 我虽 有 美貌无双的 情侣，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1}} \overset{\text{♩}}{\text{2}}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6}} \quad \overset{\text{♩}}{\text{1}} \overset{\text{♩}}{\text{2}}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1}} -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5}} \quad \overset{\text{♩}}{\text{3}}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2}} - \overset{\text{♩}}{\text{5}} \overset{\text{♩}}{\text{1}} \quad \overset{\text{♩}}{\text{1}} \overset{\text{♩}}{\text{6}} \overset{\text{♩}}{\text{6}} - \overset{\text{♩}}{\text{6}} \parallel$
 却不知 有 泥淖的 沼泽地 呻吟。
 去不知 她 真心的 情和意 呻吟。

(그림 1) ‘광활한 소원(遼闊的草原)’⁴⁾

이 민요는 모두 두 마디로 나뉘어 있는데 바알후 장조 음악의 전체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민요이다. 이 민요는 G우(羽) 오음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리듬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곡조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곡의 선율은 구성이 짧고 음악 스타일이 깨끗하다. 음악적으로 이런 장조는 몽고족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다. 곡의 노랫말 가사는 초원 지역의 자연 환경을 찬미하고 있으며, 자연과 중국 전통문화를 적절하게 융합하고 있다.

2) 부리아터 민가(布里亞特民歌)

부리아터 민가의 음악형식은 몽고족의 단조 민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로 내몽골 북부의 후룬베이얼초원(呼伦贝尔大草原)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부리아터 민요는 대중적으로 음역이 좁고 음계가 짧으나 음악적 선율은 매

4) <http://www.tom163.net/yuepuku/minzuyumeishenggepu/wuziminmeigepu/201111/28053.html>(검색일: 2019.10.2)

우 흥겹고 경쾌하다. 가장 대표적인 부리아터 민요는 ‘빠꾸기<그림 2>(布谷鳥)’이다.

‘빠꾸기’는 단조 민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몽고족 민요의 단조 형식에 속하지만, 이 민요를 부를 때는 대부분 합창 형식으로 진행한다. 곡의 선율은 몇 개의 작은 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보의 쉼표에 따라 노래 전체를 한 마디에 포함시킨다. 노래의 코드는 도(C), 미(E), 소(G) 이 3 개 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창 방법으로는 고음과 낮은 음 듀엣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합창 방식은 ‘후룬베이얼초원’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불리는 민요형식이다. 또한 가창방법에서 두 개의 파트 즉 성부로 나누어 부르며, 빠꾸기 소리를 직접 모방하기도 한다. 이런 형식의 단조 민요는 대중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짧은 선율을 통하여 몽고족 민요의 전통적인 단조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낸다(王耀華, 2009).

布谷鳥

蒙古语古例正格民歌
阿日奇蒙心译词配歌
阿日奇蒙 法音
张吃强配 伴奏

Andante

布谷鳥 係在什地方耶? 正从那边
心上人 你在什么地方耶? 正从那边
yaggin-dag 你 在 什 地 方 耶? 正 从 那 边
xe-ni-san gandai misi xa: baix bai ja bai ja xai-la-ras

南 方 向 这 边 来 耶。
海 拉 东 朝 这 边 来 耶。
y 方 向 这 边 来 耶。
o-ron nois i- radzi jow- na (go)
na- fa: i- radzi jow- na (go)

〈그림 2〉 ‘빠꾸기(布谷鳥)’⁵⁾

5) https://img2.zhaogepu.com/img/qupu123_1/54c3572781d22.png (검색일: 2019.9.2)

3) 커얼친 민가(科爾沁民歌)

커얼친 민가는 주로 내몽골의 흥안명(興安盟), 통랴오(通遼), 츠핑(赤峰) 이 3개 인접한 도시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단조 민요를 많이 부르는데 전통적인 단조 민요와 달리 팀으로 폐창하는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음악적으로 커얼친 민가는 '서사민요' 라고도 하는데, 이 민요들에는 몽고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이야기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민요의 가창 방식 또한 전통적인 단조 음악 스타일과도 큰 차이가 있는데, 곡의 주제에 따라 상이하다.

역사적으로 이 세 지역은 내몽고 '구전(說書)' 문화의 발상지이다. 때문에 몽고족 구전 전수자들은 애초부터 연설하는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전수해왔다. 전통적으로 커얼친 민가는 구전문화를 통하여 민요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구전 문화의 내용은 민요의 가사를 창출시켰으며 이것은 몽고족 민요의 다양한 주제들을 형성하였다.

커얼친 민가를 '고대수렵가(古代狩獵歌)', '유목가(游牧歌)', '신화전설가(神話傳說歌)', '우화가(寓言歌)', '고대영웅가(古代英雄歌)' 등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몽고족의 사회상과 문화적 특징을 단조 음악을 통하여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창법 또한 전반적으로 서정적인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고향을 찬미하거나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는 단조민요들을 만들어 부른다. 이러한 민요는 대중들에 의하여 신속하게 전파되어 많은 민요들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커얼친(科爾沁) 민가는 내몽고 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요만도 800곡이 넘는다(博特樂圖, 郭晶晶, 2014, 69-78)고 한다.

2. 몽고족 민요의 전통 악기의 운용

몽고족 민요는 몽고족의 전통 악기를 통하여 그 민족성과 문화적 특징을 더욱 잘 구현하고 있다. 오늘날 내몽고 지역의 많은 민족적 악기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몽고족들은 이러한 자신들만의 전통악기를 통하여 강한 민족적 특징과 음악의 문화적 특징을 전승해오고 있다. 몽고족의 전통악기에는 '현

악기와 ‘관악기’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기는 현악기로서 이 현악기에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별된 악기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전통 악기는 역시 ‘마터우친(馬頭琴)’과 ‘사호(四胡)’이다.

1) 마터우친 (馬頭琴)

마터우친은 몽고족 음악을 대표하는 전통 현악기로서 몽고어로는 ‘조르(MOHOL XƏJ)’라고 한다. 몽고족들의 전통 음식인 요구르트를 마실 때 사용하는 국자를 가공하여 그 위에 소가죽을 붙이고, 말꼬리 두개로 현을 만들어 악기를 연주했던 것이 그 전신이다. 마터우친을 일명 ‘국자호금(勺形胡琴)’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斯琴, 2013). 중국의 민속 활 현악기(拉弦乐器) 중의 하나로도 지정되어 있는 마터우친은 그 악기의 모양에서부터 강한 몽고 지역과 몽고족 문화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몽고족들은 악기의 기둥 즉 금간(琴杆) 위에 말머리를 조각한데서 마터우친(〈그림 3〉)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림 3〉 마터우친(馬頭琴)⁶⁾

6) https://www.google.com/search?q=%E9%A6%AC%E9%A0%AD%E7%90%B4&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jxLGSz7fkAhXOXIsBHDpdCfMQ_AUIEigB&biw=1368&bih=799&dpr=2#imgrc=7-hJ-tFVmLDu9M: (검색일: 2019. 9. 8)

마터우친은 ‘울림통(共鸣箱)’, ‘금두(琴头)’, ‘금간(琴杆)’, ‘현축(弦轴)’, ‘버팀목(琴马)’, ‘현(琴弦)’과 ‘활(琴弓)’ 등 8개로 구성되었다. 마터우친 전체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보통 길이는 약 1미터 정도 된다. 마터우친의 금간에는 작은 구멍이 한개 뚫려져 있는데 좌우 양쪽에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 있다. 따라서 마터우친은 현이 두 개이며, 울림통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다. 금대 위에는 말머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악기의 앞뒷면은 몽고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채색 말가죽으로 장식하였다. 중국 전통적인 현악기와 달리 마터우친의 울림통은 앞뒤 면에 모두 ‘피막(皮膜)’을 부쳐 음색을 중후하게 한다.

마터우친을 연주할 때 보통 마터우친의 아랫부분을 두 다리 사이에 끼우는 자세를 취하고 금간을 왼쪽으로 기울게 한다. 이런 스타일로 연주할 때 멜로디가 강해진다. 마터우친은 장조 민요에 가장 어울리는 악기로서 음악적 특색이 풍성한 장조민요를 연주할 때 곡의 음계와 선율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악기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 특성 외에도 광풍이나 말발굽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

마터우친과 장조 민요의 절묘한 결합을 통하여 몽고족 민요는 더욱 진일보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유목민족으로서의 몽고족의 독특한 생활 상을 가장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자연 초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잘 구현하게 되었다. 마터우친은 민간인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애용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몽고족의 대표적 전통악기로 손색이 없다. 마터우친의 광범위한 사용은 몽고족 민요 음악의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마터우친을 통하여 몽고족의 고유한 전통과 음악 및 사회문화를 더욱 입체화시켰으며 나아가 몽고족 민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20일 마터우친이 중국 최초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점도 이러한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마터우친은 내몽고 지역 일대 뿐만 아니라 중국의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간쑤(甘肅), 신장(新疆) 등 많은 지역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악기로 협연되고 있다(博特乐图, 2013). 이러한 융합은 내몽고 전통악기의 음악적 포용성을 구현하는데 마터우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호(四胡)

사호(四胡<그림 4>)는 내몽고 전통 민요의 '라현악기(拉弦乐器)'로서 사현(四弦), 제금(提琴)이라고도 부른다. 몽고어로 '호리'라고 발음된다. 18세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몽고족의 전통악기로서, 사호는 주로 중국의 내몽고 커얼친(科爾沁) 초원 지역에서 많이 사용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사호는 지역의 몽고족들이 모두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수 있는 대중적 악기이다. 전통적으로 사호는 몽고족의 일상에서, 전통명절이나 축제 때 많이 사용하며, 독주나 음악 반주로도 많이 활용한다.

사호의 '금통(琴筒)'과 '금간(琴杆)'은 모두 나무 소재로 되어있고, 악기 위에는 말가죽이 붙어있다. 줄 현은 모두 4개이며 활(弓)은 말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작 때에는 말꼬리를 두 줄로 나눠 1, 2현과 3, 4현 사이에 끼워 넣는다. 사호의 연주 방식은 중국이 얼후(二胡)와 거의 비슷하다. 모두 왼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오른손으로 리듬을 잡는다. 하지만 얼후와 다른 점은, 얼후는 기본적으로 7개 옥타브이고 사호의 음역은 2개에서 3개의 음역으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그림 4〉 사호(四胡)⁷⁾

7) <https://www.1688.com/cp/-C3C9B9C5CBC4BAFA.html>(검색일: 2019.9.2)

사호의 음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고음사호(高音四胡)', '중음 사호(中音四胡)'와 '저음사호(低音四胡)'이다. 세 음역 대의 사호의 연주방식은 공통적이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각각 다르다(明偉, 2005).

예를 들어 고음사호는 음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음색이 밝다. 몽고족들은 대중적으로 고음사호를 민요 연주에 합주시킨다. 음악적으로 고음사호는 멜로디를 관통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데, 음량이 크고 음색 또한 깨끗하기 때문이다.

고음사호는 전통적으로 몽고족들은 자신들의 민요를 연주할 때 마터우친과 함께 합주한다. 두 악기의 음의 높낮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음색 또한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전통 민요에서는 이러한 합주를 통하여 민요의 음색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적으로 안정감과 균형감을 덧입혀준다.

중음사호(中音四胡)는 내몽고의 농경 또는 반농반목(半農半牧)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고음사호와 달리 중음사호는 민요의 합주 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음사호 음색은 부드러우며, 때문에 다른 악기와의 합주를 통하여 중음의 부드러운 특징을 최대한 구현한다. 합주뿐만 아니라 독주로도 많이 활용되며 특히 '랩 음악⁸⁾'과의 결합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도 있다. 몽고족은 전통적으로 중음사호와 고음사호의 협연(重奏)을 즐기며, 마터우친이나 삼현(三弦) 악기와도 자유자재로 합주한다. 이것을 '사호중주(四胡重奏)', '민요합주(民謠合奏)'⁹⁾라고도 한다.

저음사호(低音四胡)는 내몽고의 반농반목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중음사호, 고음사호와 달리 저음사호의 음역 구간은 총 4개의 옥타브로 구성되어 있다. 민요 반주에서 이것은 5도 음계 위주로 진행된다. 이때 음역은 피아

8) 랩 제목과 사이트: 《하늘 바람(天上的風)》

參考網址 : http://zqb.cyou.com/html/2015-12/18/nw.D110000zgqnb_20151218_1-07.htm (검색일: 2019.9.2)

9) 四胡馬頭琴合奏曲目: 《走馬》 參考網址 : <https://baike.baidu.com/item/蒙古族長調民歌/3464857?fromtitle=%E8%92%99%E5%8F%A4%E9%95%BF%E8%B0%83&fromid=3964942> (검색일: 2019.9.2)

노의 G - g1 두 개의 옥타브가 된다. 저음사호를 연주할 때 자주 오른손으로 호의 중간 부분을 받들고 '금통(琴筒)'을 두드리게 한다. 이것은 음악적 리듬을 강조한 대중적인 연주방식으로 이러한 연주방법을 통하여 연주의 전체 분위기를 띄워준다. 저음사호는 전체적으로 음색이 둥글고 음역과 선율이 아름답다.

이러한 점에서 저음사호는 음악 연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우어 주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호를 통하여 몽고 민족, 유목민족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털어내고 아름다운 삶을 동경하며, 자신들만의 악기 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영웅을 칭송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였다. 사호악기는 몽고민족 나아가 보편 인간의 아름다움, 행복한 생활, 평화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대표적 전통 현악기이다.

3. 몽고족 민요의 가창 특징

후마이(呼麦)란 몽고족 노래와 몽고어를 발화할 때 사람의 목소리로 두 가지 음계를 낼 수 있는 전통창법이다. 이러한 전통적 가창방식인 후마이를 후음창법(喉音唱法), 쌍성창법(双声唱法), 다성창법(多声唱法)이라고도 한다(廖明君, 2001). 후마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몽고족 민요의 독특한 창법이다. 이 가창법은 몽고족의 강인한 생활력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발성기술이 어려워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후마이는 몽고족 산림의 수렵문화 시기에 탄생한 창법이다. 음악적으로 후마이의 최초 창법 기원은 몽고족 조상들이 수렵과 유목의 생존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자연의 소리를 목소리로 흉내는 데서 시작하였다. 그들은 후마이를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몽고족은 자신의 발성기관을 특별하게 훈련하여 독특한 발성법을 개발하였다. 초기에는 폭포, 동물 등 다양한 소리들을 모방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소리를 엮혀 화성(和聲)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화성이 바로 후마이의 전신이다.

후마이 창법의 발생 원리는 사람의 성대를 진동 할 때 흉과 복강, 두강 등 기관을 같은 시간대에서 힘을 내어 울림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몽고족들은 이것을 ‘숨막기기교(閉氣技巧)’라고 한다. 숨막기기교는 민요와 같은 노래를 할 때 우선 숨을 헐끗 참고, 곧 이어 신속하게 숨결을 강한 힘으로 성대에 충격을 가하여 굵은 ‘인두음’과 ‘마찰음’을 내면서 낮은 성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구강공명(口腔共鳴)’을 조절하여 범음(泛音)에 집중하여 투명하고 맑은 금속(金屬)과 같은 소리 내는 것이 곧 후마이 창법이다.

음악적으로 후마이는 몽고민족의 유일무이한 독특한 창법이며 전통적으로 대부분 단조음악을 위주로 진행한다. 그들은 몽고족 민요를 부를 때 한 번에 두 개의 넓은 음을 내고 한 목소리로 화음을 낸다. 후마이 창법은 자연과 우주 만물의 깊이에 대한 몽고족의 철학적 사고와 깨달음을 전달한 것이며, 동시에 자연과 우주 만물과 조화로운 생존을 추구하는 민족적 이념과 의식을 음악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IV. 몽고족 민요의 전승 가치

한 민족의 고유한 지적 재산과 문화재를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은 민족 후예들의 사명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구심점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음악무대에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몽고족의 민요음악은 그 자체의 음악적 가치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오늘날 몽고 지역에서는 몽고족 전통 문화와 음악을 전승하고자 하는 음악가들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몽고족 가운데 특히 젊은 층 곧 대학생들의 관심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필자는 2018년도 여름에 내몽고대학을 방문하여 몽고족 대학생을 상대로 “전통민요 음악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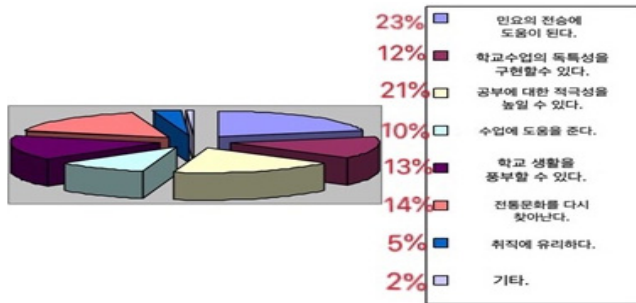
총 136명 몽고족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몽고족 민요에 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120명으로 88.2%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1). 민요 레슨을 경험한 자도 93명으로 68.3%를 차지하였고 몽고족 전통 악기나

가창법을 할 줄 아는 학생도 90명으로 66%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몽고족 민요 수업이 민요의 전승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민요수업의 장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2> 민요의 전승에 도움이 된다든가, 학교수업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다든가, 학업에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든가,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든가, 전통 문화가 전승된다든가, 취직에 도움이 된다든가 등 다양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내몽골대학교 몽골족학생 전통 민요음악에 대한 인식

항 목	활동유무	유	무	모름	합계
민요 대회 참여 여부		120명 (88.2%)	10	6	136
민요 레슨 경험 유무		93명 (68.3%)	7	36	136
전통 악기, 가창법 유무		90명 (66.1%)	31	15	136

<표 2> 민요 수업의 장점



VI. 결론

몽고족 민요는 뚜렷한 전통성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는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70년 기간 몽고족 민요가 고유한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몽고족 민요의 음악양상과 특징을 몽고족 민요의 장조와 단조의 두 가지 유형과 대표적인 지역특징인 바얼후 장조민요, 부리아터민요, 커얼 친민요 민요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고 민요를 연주하는 마터우친과 사호 전통기의 민족적 문화적 특성을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몽고족 민요를 노래하는 가창법에 대하여 음악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몽고족 민요의 전승 가치에 대하여 내몽고대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 민족의 고유한 지적 재산과 문화재를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은 민족 후예들의 사명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구심점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몽고족 음악형식과 민족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하며 전통음악과 새로운 음악의 전승관계를 고찰하는데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내몽골의 민족 악기, 전통 창법, 역사적 배경, 지역 환경 등은 전통 민요의 전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몽골 민요 유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내몽고 자치구의 대표적인 문화재산으로서의 민요의 전승은 몽고족의 문화 및 풍요로운 삶의 전반에 적극적인 가치와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민요의 전승은 중국의 총체적인 사회발전 긍정적인 활력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廖明君(2001), “洛秦訪談錄-音樂與文化的關係何在?”, 『民族藝術』, 제2권, 50-58쪽.
- 明偉(2005), “蒙古族”, 『音樂民族』, 제3권, 78-85쪽.
- 博特樂圖(2013), 『內蒙古音樂研究及作品精選』, 內蒙古人民出版社, 108-115쪽.
- 博特樂圖, 郭晶晶(2014), “蒙古族音樂研究百年(一)”, 『內蒙古大學藝術學院學報』, 11(3), 69-78쪽.

- 富 饒(2015), “中國·蒙古族民歌藝術學術研討會論文集—長調”, 『內蒙古長調區域分佈及其生存現狀』, 제18호, 59-68쪽.
- 李華(2001), “蒙古族民謠”, 『音樂生活』, 제3권 4호, 68쪽.
- 斯琴(2013), “草原歌曲創作中多元文化的融合”, 『歷史沿革(內蒙古自治區成立六十周年專題)』, 제6권, 41-43쪽.
- 說唱歌曲《天上的風》
- 王耀華(2009), “蒙古族音樂”, 『中國民族音樂』, 제3호, 4-14쪽.
- 王玲玲(2013), “布里亞特蒙古族民間音樂及歌曲分類”, 『語文學刊(教育版)』, 16(3), 23-28쪽.
- 魏德全(2008), “少數民族-蒙古族”, 『音樂大觀』, 제4호, 39-46쪽.
- 田聯韜(2001), “蒙古族民謠”, 『中國少數民族傳統音樂』, 제16호, 23-36쪽.
- 鄭愛蓮(2005), “民族文化的國家義意與教育價值”, 『思想教育研究』, 제5기, 11-15쪽.
- 趙永銑(2013), “內蒙古社會現像”, 『內蒙古社會科學』, 제58호, 105-108쪽.
- 周清澎(1993), “內蒙古區域分佈”, 『內蒙古歷史地理』, 제11호, 34-38쪽.
- 佟繁榮(2011), “蒙古族民謠作品分析”, 『美麗其格及其歌曲作品研究』, 제20호, 57-62쪽.
- 特樂圖(2001), “公演, 文本, 語境, 內蒙古音樂口傳的傳承及其研究”, 『內蒙古音樂』 제6호, 20-25쪽.
- 랩 제목과 사이트: 《늘 바람(天上的風)》 參考網址 : http://zqb.cyol.com/html/2015-12/18/nw.D110000zgqnb_20151218_1-07.htm(검색일: 2019.09.02)
- 四胡馬頭琴合奏曲目 : 《走馬》 參考網址 : <https://baike.baidu.com/item/蒙古族長調民歌/3464857?fromtitle=%E8%92%99%E5%8F%A4%E9%95%BF%E8%B0%83&fromid=3964942>(검색일: 2019.09.02)
- <http://www.tom163.net/yuepuku/minzuyumeishenggepu/wuziminmeigepu/201111/28053.html>(검색일: 2019.10.02)
- https://img2.zhaogepu.com/img/qupu123_1/54c3572781d22.png(검색일: 2019.09.02)

[https://www.google.com/search?q=%E9%A6%AC%E9%A0%AD%E7%90%B4&source=lnms&tbn=isch&sa=X&ved=0ahUKEwJxLGSz7fkAhXOxIsBHdpdCfMQ_AUIEigB&biw=1368&bih=799&dpr=2#imgre=7-hJ-tFVmLDu9M:\(검색일: 2019.09.08\)](https://www.google.com/search?q=%E9%A6%AC%E9%A0%AD%E7%90%B4&source=lnms&tbn=isch&sa=X&ved=0ahUKEwJxLGSz7fkAhXOxIsBHdpdCfMQ_AUIEigB&biw=1368&bih=799&dpr=2#imgre=7-hJ-tFVmLDu9M:(검색일: 2019.09.08))

<https://www.1688.com/cp/-C3C9B9C5CBC4BAFA.html>(검색일: 2019.09.02)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nheritance of the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in China

SI-YU · Lee, YoungWol

Folk music is not only a nation's important resource which could develop their inherent values and world views, but also the core of the innovation of a nation's culture. Among the various minorities in China, the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is unique, and it has been registered by UNESCO as a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6.

S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or the "new China") was founded, many pieces of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with their innovative era characteristics have been produced, thanks to the composers. The Mongolian traditional music characteristic "*long tune*", the most representative Mongoli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morin khuur*", and the unique method of singing "*Khoomei*", all of them are the center of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and they have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till today. The reason why the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has such ear characteristics is due to the vast grassland's natural environment, the Mongolian minority's unique life-style and their national custom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70 years of the traditional inheritance of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since the new China's foundation in

1949, along with the music's characteristics formed by the new era cultural background, and then analyze and investigate the lyrics, musical instruments and methods of singing.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takes the representative resource from 『Research on Mongolian Music of a Hundred Years(book one)』 as its research scope, and also, I visited the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in 2018 and did a survey named “The Degree of Concern for the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of the Mongolian minority youth, this paper will use the result of this survey as its supplementary resource as well. Through this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n minority's musical forms and their national life-style could be explored, and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music and new music could be investigated as well, these would b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is paper.

Key words: Mongolian minority's folk music, long tune, short tune, morin khuur, Khoomei, cultural characteristics, inheritance

논문접수일: 2019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4일